

## 비윤리적 정보공유 딜레마와 사회적 네트워킹 관계에서 정보접근 모니터링의 영향력

정 병 호\*

### *The Impact of Information Access Monitoring between Dilemma of Unethical Information Sharing and Social Networking*

Jung Byoung-ho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 immoral effectiveness decrease by information access monitoring between ethical dilemma and unethical information-sharing behavior. Firms are raising the demand of confidential information management and are highlighting the ethical awareness of organizational members. The individuals in organization are concerned information sharing for future-oriented social networking. To prevent their immoral behavior, Firms should consider investing the information access monitoring. This system is aiming at log verification of movement, storage and deletion on information and will reduce an ethical conflict and unethical behavior on employees.

I used the structural equation methodology for this empirical study. The research model constructs the voluntary and involuntary dilemma of information sharing on the two independent-variables, the unethical information behavior and the improper networking reinforcement on the two dependent-variables and the information access monitoring the one mediating-variables. This model tests the power effect of direct path, indirect path and total path.

According to the study, the two ethical dilemma of information sharing provided a high influence to the unethical sharing action and to the inappropriate social networking strengthens. However, the mediating role of information access monitoring shows the effect weakens of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Thus, the mediating variables appeared to be important for the controlling role of an unethical behavior and improper social networking. Ultimately, The firms will need to invest the information access monitoring for a compulsory ethics behavior of organizational members. In addition, this can hinder networking enhancements for future opportunistic behaviors.

Key Words : Unethical Information Sharing Behavior, Ethical Dilemma, Ethical Issue,  
Social Networking, Information Access Monitoring

\* 경남대학교 글로벌프로젝트매니지먼트 연구원

## I. 서론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발달로 제품·서비스는 빠른 속도로 출시되었고, 고객별 맞춤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플랫폼의 성장은 기존에 경쟁자로 인식하지 않았던 기업들을 새롭고 강력한 경쟁자로 부각시키고 있다[1]. 이렇게 급변하게 움직이는 시장에서 기업들은 고객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신제품·신서비스의 개발을 발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2]. 기업들은 신규 고객 창출과 미래의 생존을 위해서 경쟁자 동향 파악과 산업 변화 파악을 수시로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데이터 분석가의 역량도 요구되고 있다[3].

최근 기업의 비즈니스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활동이 스마트폰, 클라우드, 공간 빅데이터 등으로 이루어지면서 IT의 중요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4]. IT로 인하여 시공간의 구분 없이 정보는 교류되고 있어서, 기업들은 내부 정보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기밀정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5]. 기업들은 정보관리 일환으로 정보관리 정책·제도, 인적 자원들의 정보교육, IT 보안 구축, CCTV 설치, 전용 인터넷 구축 등에 집중하고 있다[6]. 특히, 기업들은 정보를 1급부터 대외비, 공개용으로 등급을 구분하여 정보접근 위치와 시간, 데이터 복제, 이동, 삭제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7]. 정보접근 모니터링은 정보의 이동, 저장, 삭제의 로그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업들이 정보접근 모니터링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정보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공하고, 잘못된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다[5].

하지만 기업의 기밀정보 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성원들은 정보 자체를 무형적 중요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때때로 개인적 기회

주의를 발동시켜 외부로 누출하는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5].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정보 보호를 위해서 정보접근 모니터링의 투자에 집중하고 있지만, 조직 구성원들은 상급자들과의 권력 관계, 기업 구조조정의 상황, 개인의 사적이익 창출 등 이유로 기밀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8]. 특히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는 사회·심리적 협동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상호 네트워킹 관계를 고민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9]. 즉, 조직 구성원들의 정보공유 딜레마는 네트워킹 관계 때문에 비윤리 정보공유 행동을 할 수 있다. 기업들도 기밀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서라도 정보접근 모니터링에 투자를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 구성원들의 기밀정보 공유의 윤리적 딜레마,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 비윤리적 네트워킹 강화, 정보접근 모니터링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정보접근 모니터링이 조직 구성원들의 정보공유 딜레마와 비윤리적 공유 행동, 비윤리적 네트워킹 강화 사이에서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키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보접근 모니터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 II. 관련연구

### 2.1 합리적 선택이론과 윤리적 딜레마

합리적 선택이론은 개인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근본적으로 어떠한 원인 요인에서 영향을 받았는지가 중요하다. Elster[10]에 의하면 개인이 어떤 특정 상황에서 목표나 욕구를 실현하는데 이전 경험으로 형성된 믿음이 최선이라고 고찰되면, 이를 합

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하였다. 합리적 선택 이론은 외부의 상황과 관련하여 과거에 형성된 믿음과 욕구로서 개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의도적 행위라고 보고 있다. 합리성은 개인의 믿음과 욕구, 행위 간의 관계에서 의도적 목적성이 합리적이라는 것과 그에 따른 행위의 결과로서 나타난다[11]. 즉, Elster가 주장하는 합리적 선택 이론은 개인이 선택한 행동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최적성, 일관성, 인과성의 세 가지 조건과 행동, 욕구, 믿음 3자 간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된다고 하였다[12]. 여기서 최적성이란 개인의 행동은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며, 일관성은 개인의 일관적인 믿음과 욕구에 의해서 행동이 유발되는 것이고, 인과성은 믿음과 욕구가 이유에 의해서 행동이 유발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윤리적 딜레마란 문제적 요소, 상황적 요소, 기회주의적 요소가 기업 및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여 개인들에게 여러 부정적 행동을 제공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8]. 윤리적 딜레마가 나타나게 되는 이슈로는 조직 내부의 강압적이거나 위협적 행동, 인사이동 및 인센티브와 같은 내부 거래 등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고 정직한 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며, 구성원 간 상호관계의 갈등을 형성시켜 주게 되는 부정적 요인이다[13].

개인들은 조직의 장기적 근무와 직무 확장을 위해서 윤리적 딜레마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공유의 합리적 선택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14]. 특히,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당사자의 경우에 과거 조직 내부의 관리자들의 행동을 고찰하고, 당사자 개인의 욕구를 일치시킬 것이다. 여기서 이기적인 행동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면 정보공유가 합리적 최선의 선택이라고 결론지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조직 내부에서 형성되어지는 윤리적 분

위기에 따라서 개인들은 합리적 선택을 고찰하게 되고 윤리적 딜레마를 해소하려 할 것이다.

## 2.2 정보보안과 정보접근 모니터링

정보보안은 기업의 기밀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장치이다[15]. 그리고 보안은 조직 자산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기도 하다[16]. 기업의 정보보안 활동은 조직 내부의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행동이며, 이를 위해 기업은 정보보호 제도와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17]. 즉, 기업은 기밀정보가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경쟁력과 직결되므로 허가된 인적자원 외에는 정보접근을 차단할 필요성 있다.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은 시장경쟁 환경에서 정보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경쟁력으로 설명된다[18]. 이에 기업들은 내부적 정보보호 활동을 위해 정보접근 모니터링을 투자하고 있다. 기업들의 정보접근 모니터링 투자는 조직 구성원들의 정보접근 경로분석, 접근 시간, 조직 외부에서의 접근 경로 등을 판단하고 관리하기 위함이다. 정보접근 모니터링은 이메일 감시, 인터넷 감시, 인쇄 출력물, fax,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미지 파일 생성 등을 감시하고 작업장에서 나타나는 정보 유출 행동을 엄격하게 통제시켜 준다[5].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의 내부 보안 사고의 위협요소를 사전에 경고하고,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통제하여 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 도움을 주는 운영 시스템이다[19].

따라서 기업은 기밀정보 관리를 위해 정보접근 모니터링을 정형화하고, 정보 특성에 따라서 등급 관리를 고찰해야 한다[16]. 정보접근 모니터링은 비인가자들로 인해서 정보 변경, 삭제, 파괴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즉, 정보가 필요한 경우 허가된 인적자원만 적절하게 정보의

접근을 보장시켜주고, 조직 구성원들의 정보유리를 강제로 지켜 나아갈 수 있게끔 제공하는 시스템이다[6].

### 2.3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과 비윤리적 사회 네트워킹 강화

조직 구성원들의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은 개인의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8].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은 개인의 조직 내·외부의 권력 강화를 위한 행동과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부도덕한 행동이라고 정의된다[20]. 또한, 기업의 기밀정보 유출로 인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범죄 행동이기도 하다. 즉, 비윤리적 행동은 기업의 재산과 조직 내부의 비윤리적 분위기를 잠재적으로 높이는 영향력을 제공한다.

한편, 개인들은 기밀정보의 공유를 통해 암묵적으로 개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 보상의 약속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된다[8].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로 나타나는 기대이익이며, 조직 구성원들 관계에서 공식적, 비공식적인 상호작용에 기초한 관계로서 자본적 구조가 형성된다[21]. 사회적 자본은 정서적 교류, 공동작업, 물질적 지원을 통해서 발생되며, 비가시적이고 무형적인 측면을 가진다. 이에 조직 구성원들은 사회·심리적 협동시스템 구조에서 상호 사회적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22].

즉, 개인이 사회적 관계 형성 시 기밀정보 공유 행동으로 정서적 교류와 물질적 지원을 받고 싶다면 이는 비윤리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23].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에 의한 사회적 자본의 확대는 기회주의적 관계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상호 보상적 제공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권력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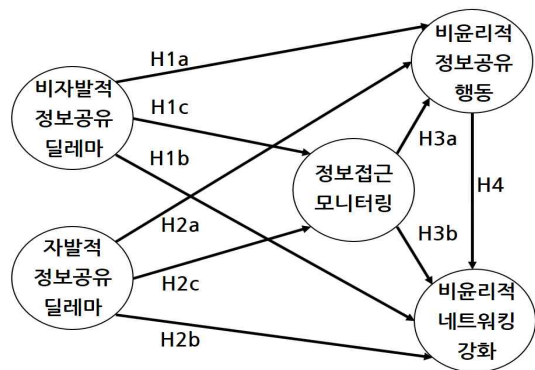
인센티브 관점에서 이기적 기회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상호 네트워킹 관계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 III. 연구방법론

### 3.1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본 연구는 조직 구성원들의 비윤리적 기밀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정보접근 모니터링의 효과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세밀하게 조사하기 위해 방문조사 및 이메일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5년도 5월 1일~17일간 표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언론에서 CEO의 비윤리 행위가 1회 이상 언급되었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표본 수는 총 637명이었다.

특히, 조직 내부의 정보접근 모니터링 시스템이 비윤리적 요소를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즉, 조직 구성원들의 기밀정보 공유 대한 딜레마 상황과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 비윤리적 네트워킹 강화 사이에서 정보접근 모니터링이 일정부분 비윤리적 요소를 감소시키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 모델

윤리적 딜레마는 조직 구성원이 윤리적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된다[8]. 정보공유 관점에서 조직 구성원들의 윤리적 딜레마는 현재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적 영향력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조직 내·외부에서 개인 간 영향력과 고유 업무의 원활한 협력의 문제로 인하여 정보공유에 대한 딜레마는 끊임없이 발생하게 된다[13].

즉, 정보공유의 윤리적 딜레마는 개인 미래의 기회주의적 상황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딜레마가 지속되면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에 높은 영향력을 제공할 것이다[5]. 특히, 자발적 정보공유의 딜레마는 개인의 기회주의를 더욱 강조하는 요인으로 작용되며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에 강력한 영향력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비자발적 정보공유 딜레마도 타인에 의한 정보공유에 요청이지만 미래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게 되면서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에 영향을 제공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a: 비자발적 정보공유 딜레마는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을 높이는 영향력을 제공할 것이다.

가설 2a: 자발적 정보공유 딜레마는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을 높이는 영향력을 제공할 것이다.

조직 구성원들은 상호·협동 시스템 내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미션과 비전을 수행하게 된다[22]. 조직 구성원들은 비즈니스 수행을 위해 회의, 지식교환, 학습조직을 구성하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시킨다[23]. 사회적 관계는 개인의 업무적 어려움이 봉착하거나 미래 위협을 대비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다[21].

한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타인의 정보공유 요청이나 스스로 정보 교환의 필요성이 요구될 수 있다[19]. 개인들이 사회적 관계를 더욱 높이거나 강화하는 과정에서 비윤리적 정보공유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8]. 비윤리적 사회 네트워킹은 정보의 교환 채널, 빈도, 매개체 요인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친밀도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래의 개인적 권력과 지위 상승을 위한 네트워킹 강화가 요구될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보 공유의 교환이 개인의 윤리적 딜레마를 형성시켜 줄 수 있다[5]. 정보공유의 윤리적 딜레마가 비윤리적 사회 네트워킹을 강화하는데서 발생할 수 있다. 이렇듯, 기밀정보의 공유에 대한 딜레마가 현재와 미래에 개인적 도움을 준다면 부정적인 네트워킹 형성 강화에 영향력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b: 비자발적 정보공유 딜레마는 비윤리적 네트워킹 강화를 높이는 영향력을 제공할 것이다.

가설 2b: 자발적 정보공유 딜레마는 비윤리적 네트워킹 강화를 높이는 영향력을 제공할 것이다.

기업들의 정보접근 모니터링 투자는 조직 구성원들의 정보공유 통제를 강제시킨다[8]. 기업의 정보는 무형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외부로 누출되면 재정적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기업들은 조직 구성원들의 정보 흐름을 감시할 수밖에 없다[2]. 특히, 정보접근 모니터링은 내부의 정보가 외부로의 이동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정보를 관리하는 주체자의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다[24]. 즉, 정보접근 모니터링

링이 기업 정보의 책임자로 설정시켜주면서 정보 관리 주체자의 역할 인식도 높여주는 요인이 된다. 이렇듯, 정보접근 모니터링 때문에 개인들이 정보공유의 대한 윤리적 딜레마가 형성되더라도 기업 내부의 윤리적 상황과 범죄적 인식 때문에 정보공유의 요인이 감소될 수 있다[8]. 개인들이 정보공유를 요청받거나 스스로 정보공유의 딜레마가 형성되더라도 정보접근 모니터링 때문에 정보공유의 심적 부담이 발생되며, 이는 정보공유의 행동 이전에 윤리적 딜레마요인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25].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정보접근 모니터링이 부정적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조직 내부의 운영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인 모방 투자와 부실한 정보 보안 교육 때문에 올바르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26-27]. 또한, 조직 구성원들의 정보공유 딜레마가 장기간 지속되면 정보접근 모니터링의 영향력은 약화될 수 있을 것이다[8]. 개인의 사적 이익 욕구가 높아지면 윤리적 딜레마는 지속될 것이고, 이는 정보접근 모니터링을 회피하는 방안을 탐색하게 되는 동기부여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공유 딜레마가 정보접근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영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현상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c: 비자발적 정보공유 딜레마는 정보접근 모니터링과 부(-)의 관계로서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가설 2c: 자발적 정보공유 딜레마는 정보접근 모니터링과 부(-)의 관계로서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정보접근 모니터링은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정보공유에 대한 로그 기록을 실시간으로 저장한다[28]. 기업은 정보접근 모니터링을 통해서 비윤리적

정보공유를 행동한 개인들을 처벌시킬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즉, 개인들은 비윤리적 정보공유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 때문에, 부적절한 정보공유 행동과 부정한 네트워크 관계를 억제할 수 있다. 즉, 정보접근 모니터링은 전자적 정보 교환 또는 복사, Fax에 대한 기록을 가지게 되면서 상호 간 교환 대상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확보한다[8].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정보접근 모니터링이 개인들의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과 네트워크 강화를 감소시키는데 영향력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a: 조직의 정보접근 모니터링은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을 감소시킬 것이다.

가설 3b : 조직의 정보접근 모니터링은 비윤리적 네트워크 강화를 감소시킬 것이다.

개인들의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은 개인의 이기적 행동에서 비롯되며, 현재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8].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은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제공한다. 한번 제공한 정보를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교환받은 대상자와 필요에 따라서 때때로 교류하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된다[23]. 하지만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은 기밀정보 공유를 통한 비윤리적 네트워크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이 정보를 교환하는 사람과의 관계적 형성에 도움을 주면서 비윤리적 네트워크 강화에 높은 영향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은 비윤리적 네트워크 강화에 높은 영향력을 제공할 것이다.

### 3.2 조작적 정의 및 변수 설정

독립 변수로서 윤리적 딜레마의 구성개념은 비자발적 정보공유 딜레마와 자발적 정보공유 딜레마로 정의하였다. 윤리적 정보공유 딜레마는 조직 구성원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정보공유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정의하였다. 우선 비자발적 정보공유 딜레마는 기밀정보 공유가 상급자와 나와의 관계에서 불가피하게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딜레마로 이루어진다. 이를 개인의 불가피한 정보공유 강압적 상황으로 구성하였다. 정보공유의 강압성은 상급자의 강압적 권력 및 위협에 의해서 나타나는 윤리적 딜레마이다. 이에 대한 측정 변수로는 상급자 요청에 따른 다른 팀 정보공유, 상급자 요청에 따른 외부 협력사에 정보공유, 상급자 요청에 따른 퇴직자 정보공유 정도로 구성하였고, 리커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5,8,13-14]. 자발적인 정보공유 상황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는 개인의 경력개발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 딜레마 정도로 구성하였다. 경력개발을 위한 조직 내부 거래에 정보제공 딜레마, 경력개발을 위한 외부기업 협력에 정보제공 딜레마, 경력개발을 위한 퇴직자의 협력에 정보제공 딜레마 정도로 구성하였고, 리커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5,8,13-14].

매개 변수로서 정보접근 모니터링의 구성개념은 조직구성원들의 비윤리적 정보공유 의도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안 시스템의 활동으로 정의된다. 개인들이 보유 및 관리하는 기밀정보를 외부에 누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요인으로 정의하였다. 정보접근 제한성 강화, 전자인증의 여러단계 설정, IT 부서의 정보 공동감시의 정도로 구성하였으며, 리커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8-20].

종속 변수로서 비윤리 정보공유행동의 구성개념은 조직 구성원들이 윤리 규정을 위반하면서 비윤리적 정보를 공유하는 행동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비

윤리적 정보공유 행동에는 인터넷 공유, 종이 인쇄 공유, 서면으로 외부에 공유 정도로 구성하였고, 리커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5,8,21-25]. 마지막으로 비윤리적 네트워크 강화는 조직 구성원들이 부정확한 방법을 통해서 사회적 자원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정의하였다. 비윤리적 네트워크 강화는 조직 내부, 외부 협력사, 퇴직자의 네트워크 강화 정도로 구성하였고, 리커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5,8,21-25].

## IV. 연구결과

### 4.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표본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빈도 분석을 토대로 <표 1>에 제시한다.

<표 1> 표본의 특성

구분		빈도	구성비율(%)
성별	남자	405	66.1
	여자	208	33.9
나이	20~29	76	12.4
	30~39	168	27.4
	40~49	195	31.8
	50~59	113	18.4
	61세 이상	61	10.0
직급	실무자	123	20.1
	주임급	30	4.9
	대리급	92	15.0
	과장급	158	25.8
	차장급	79	12.9
	부장급	72	11.7
	이사급 이상	59	9.6
기업 규모	10인 이하	90	14.7
	11~49	118	19.2
	50~99	89	14.5
	100~199	69	11.3
	200~299	39	6.4
	300명 이상	208	33.9

구분		빈도	구성비율(%)
산업	제조업	205	33.4
	유통업	55	9.0
	금융업	39	6.4
	건설업	49	8.0
	서비스업	230	37.5
	공공업	16	2.6
	교육업	13	2.1
	기타	6	1.0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는 405개(66.1%), 여자는 208개(33.9%)로 나타났다. 직급은 실무자가 123개(20.1%), 과장급이 158개(25.8%)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로는 300명 이상 기업이 208개(33.9%), 11~49인 기업이 118개(19.2%)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205개(33.4%), 서비스업이 230개(37.5%)로 높게 나타났다.

#### 4.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사용하였다. 신뢰성은 측정 도구가 측정 대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신뢰성 검증은 일반적인 연구에서 계수 값이 0.6 이상이면 측정 도구의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29]. 이는 <표 2>에 나타내었고,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 변수가 0.785이며 나머지 변수는 이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결과

변수명	Factor	Com.	AVE	C.R.	Rel.
비자발적 정보공유 딜레마	.810	.781	.755	.902	.843
	.861	.818			
	.805	.732			
자발적 정보공유 딜레마	.779	.786	.819	.931	.819
	.854	.855			
	.857	.827			

변수명	Factor	Com.	AVE	C.R.	Rel.
정보접근 모니터링	.878	.841	.847	.943	.847
	.887	.869			
	.868	.836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	.815	.776	.785	.916	.785
	.849	.837			
	.795	.748			
비윤리적 네트워킹 강화	.815	.850	.855	.946	.855
	.849	.862			
	.795	.844			

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 Com.: Communality  
C.R.: Composite Reliability, Rel.: Cronbach Alpha Reliability

그리고 분석 표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후 요인 적재량을 단순화시키기 위해 직각 회전 방식인 베리맥스 방식을 적용하였다. 요인 적재치는 각 변수와 요인 간의 상관관계가 0.5 이상인 경우를 유의한 것을 판단한다[29]. 그리고 표본자료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KMO (Kaiser-Meyer-Olkin) 검증은 요인분석을 위해 변수 간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으로 0.5 이상이면 요인분석에서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29]. 이에 KMO의 값은 0.885(p=0.000)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공통성이 0.4이하이면 낮다고 판정하여 요인분석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변수는 없었다.



<표 3> 상관계수 및 판별타당성

	비자발적 정보공유 딜레마	자발적 정보공유 딜레마	정보접근 모니터링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	비윤리적 네트워킹 강화
비자발적 정보공유	.869				
자발적 정보공유	.471**	.905			
정보접근 모니터링	-.330**	-.313**	.920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	.397**	.350**	-.437**	.886	
비윤리적 네트워킹 강화	.597**	.394**	-.417**	.623**	.925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대각선 음영 처리된 부분은 AVE값의 제곱근임.

AVE(평균분산추출, Average Variance Extracted)는 잠재변수에 대해서 측정변수들이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분산의 크기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0.5이상이면 신뢰성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C.R.(개념신뢰도, Composite Reliability)는 측정 변수들의 내적 일관성을 설명하는 지표로서 0.6이상이면 신뢰성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판별타당성 검정을 위해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가 모든 구성개념 간 상관 자승치 보다 큰 값을 가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잠재변수 AVE제곱근 값이 잠재변수와 다른 잠재변수 간의 모든 상관계수보다 클 경우 판별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29]. <표 3>에 나타났듯이 모든 잠재변수의 구성개념은 상관계수보다 높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법칙타당성을 살펴보게 되면 잠재변수 간 상관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모든 변수가 유의하다고 나타나 법칙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나타났다.

### 4.3 가설 검정

연구모델의 가설검정을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수립하였다. 구조방정식은 모형 검정은 매개변수와 조절변수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주며, 경로계수의 크기와 방향성, 통계적 유의성, 선행 변수를 통해 설명되는 최종 종속변수의 계수값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본 연구의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 GFI는 .954, AGFI는 .931, CFI는 .979, NFI는 0.967, RMR은 .034, RMSEA는 .052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RMR은 0.05 이하이면 좋다고 보고 있으며 RMSEA는 0.08이하이면 좋다고 보고 있다. GFI, AGFI, CFI, NFI는 0.9이상이면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모형은 사회과학 관점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29].

각 경로 모형을 살펴보면, 비자발적 정보공유 딜레마가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2.762(p=0.006)로 나타났다. 이에 H1a 가설은 채택되었다. 비자발적 정보공유 딜레마가 비윤리적 네트워킹 강화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2.652(p=0.008)로 나타났다. 이에 H1b 가설은 채택되었다. 비자발적 정보공유 딜레마가 정보접근 모니터링에 미치는 영향으로 -3.863(p=0.000)으로 나타났다. 이에 H1c 가설은 채택되었다.

한편, 자발적 정보공유 딜레마가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4.981(p=0.000)로 나타났다. 이에 H2a 가설은 채택되었다. 자발적 정보공유 딜레마가 비윤리적 네트워킹 강화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9.075 (p=0.000)로 나타났다. 이에 H2b 가설은 채택되었다. 자발적 정보공유 딜레마가 정보접근 모니터링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4.827(p=0.000)로 나타났다. 이에 H2c 가설은 채택되었다. 정보접

<표 4> 가설검정 결과 현황

가설	경로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간접 효과 세부내역			
			Est.	p	Est.	S.E.	C.R.	p	Est.	p	Path	Est.	p	
H1a	비자발적 정보공유 딜레마	→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	0.205	.011	0.136	.049	2.762	.006	.069	.002	비자발적→모니터링 →공유행동	.069	.002	
H1b		→ 비윤리적 네트워크 강화	0.215	.013	0.109	.041	2.652	.008	.106	.007	비자발적→모니터링 →네트워킹	.022	.011	
H1c		→ 정보접근 모니터링		-0.199	.000	-0.199	.051	-3.863	.000			비자발적→공유행동 →네트워킹	.056	.036
												비자발적→모니터링 →공유행동→네트워킹	.028	.003
H2a	자발적 정보공유 딜레마	→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	0.349	.008	0.259	.052	4.981	.000	.090	.011	자발적→모니터링 →공유행동	.090	.011	
H2b		→ 비윤리적 네트워크 강화	0.596	.012	0.424	.047	9.075	.000	.172	.003	자발적→모니터링 →네트워킹	.029	.004	
											자발적→공유행동 →네트워킹	.107	.018	
H2c		→ 정보접근 모니터링		-0.259	.000	-0.259	.054	-4.827	.000			자발적→모니터링 →공유행동→네트워킹	.036	.004
H3a	정보접근 모니터링	→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	-0.345	.000	-0.345	.045	-7.598	.000						
H3b		→ 비윤리적 네트워크 강화	-0.253	.011	-0.111	.039	-2.828	.005	-.142	.004	모니터링→공유행동 →네트워킹	-.142	.004	
H4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	→ 비윤리적 네트워크 강화	0.411	.000	0.411	.044	9.312	.000						

Est.: Estimate, S.E.: standard error, C.R.: Critical Ratio

근 모니터링이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7.598(p=0.000)로 나타났다. 이에 H3a 가설은 채택되었다. 정보접근 모니터링이 비윤리적 네트워크 강화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2.828 (p=0.005)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H3b는 채택되었다. 비윤리

적 정보공유 행동이 비윤리적 네트워크 강화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9.312(p=0.000)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H4는 채택되었다. 본 연구모형의 내생변수들의 분산이 선행 변수들을 통해 설명되는 정도(종속변수가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다

중 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값을 살펴보면, 정보접근 모니터링이 비자발적 정보공유 딜레마, 자발적 정보공유 딜레마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은 16.5%이며,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이 설명되는 부분은 33.6%, 비윤리적 네트워킹 강화는 62.5%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세부 내용의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다음은 연구 모델의 경로에서 매개적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우선 비자발적 정보공유에 대한 매개 효과를 분석하였다. 비자발적 정보공유 딜레마가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에 미치는 총 효과로는  $0.205(p=0.011)$ 로 나타났다. 여기서 직접 효과는  $0.136(p=0.006)$ 으로 나타났고, 간접 효과는  $0.069(=-0.199 \times -0.345, p=0.002)$ 를 보이면서, 정보접근 모니터링에 의한 비윤리적 행동 감소가  $50.7%(=0.069 \div 0.136)$  정도 있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비자발적 정보공유 딜레마가 비윤리적 네트워킹 강화에 미치는 총 효과는  $0.215(p=0.013)$ 로 나타났다. 여기서 직접 효과는  $0.109(p=0.008)$ 로 나타났고, 간접 총 효과는  $0.106(p=0.007)$ 로 나타났다. 이에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의 수치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비자발적 정보공유 딜레마가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을 매개하여 네트워킹 강화에 영향을 준 간접 효과는  $0.056(=0.136 \times 0.411, p=0.036)$ 으로 나타났다. 즉, 간접 효과의  $51.4%(=0.056 \div 0.109)$  정도가 부정적 영향력을 높여주는 효과를 보였다. ② 비자발적 정보공유 딜레마가 정보접근 모니터링을 단일 매개로 하여 비윤리적 네트워킹 강화의 간접 효과를 살펴보면  $0.022(=-0.199 \times -0.111, p=0.011)$ 로 나타나면서  $20.2%(=0.022 \div 0.109)$  정도 부정적 영향력이 감소된다고 나타났다. ③ 이중 매개로 한 간접 효과는  $0.028(=-0.199 \times -0.345 \times 0.411, p=0.003)$ 로 나타나면서  $25.7%(=0.028 \div 0.109)$  정도 부정적 영향력이 감소된다고 나타났다.

한편, 자발적 정보공유 딜레마가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에 미치는 총 효과는  $0.349(p=0.008)$ 로 나타났다. 여기서 직접 효과는  $0.259(p=0.000)$ 이며, 간접 효과는  $0.090(=-0.259 \times -0.345, p=0.011)$ 로 나타나면서 정보접근 모니터링에 의한 비윤리적 행동의 감소가  $34.8%(=0.09 \div 0.259)$  정도 있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자발적 정보공유 딜레마가 비윤리적 네트워킹 강화에 미치는 총 효과는  $0.596(p=0.012)$ 로 나타났다. 여기서 직접 효과는  $0.424(p=0.000)$ 로 나타났으며, 간접 총 효과는  $0.172(p=0.003)$ 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자발적 정보공유 딜레마가 비윤리적 정보공유를 매개하여 네트워킹 강화에 영향을 준 간접 효과는  $0.107(=-0.259 \times 0.411, p=0.018)$ 로 나타났다. 즉, 간접 효과의  $25.2%(=0.107 \div 0.424)$  정도가 부정적 영향력을 높여주는 효과를 보였다. ② 자발적 정보공유 딜레마가 정보접근 모니터링을 단일 매개로 한 간접 효과에서는  $0.029(=-0.259 \times -0.111, p=0.004)$ 로 나타나면서  $6.8%(=0.029 \div 0.424)$  정도 부정적 영향력이 감소된다고 나타났다. ③ 이중 매개로 한 간접 효과는  $0.036(=-0.259 \times -0.345 \times 0.411, p=0.004)$ 로 나타나면서  $8.5%(=0.036 \div 0.424)$  정도 감소된다고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보접근 모니터링이 비윤리적 네트워킹 강화에 미치는 총 효과는  $-0.253(p=0.011)$ 로 나타났다. 여기서 직접 효과는  $-0.111(p=0.005)$ 로 나타났으며, 간접 효과는  $-0.142(=-0.345 \times 0.411, p=0.004)$ 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 조직 내부에 정보접근 모니터링이 매개 역할을 하면, 정보공유 딜레마와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 비윤리적 네트워킹 강화 관계에서 일정부분 비윤리적 영향력을 감소시켜주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정보공유 딜레마가 정보접근 모니터링을 매개하지 않고,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을 우선적으로 매개할 때 비윤리적 네트워킹

강화는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의 매개 효과가 정보 접근 모니터링의 매개 효과보다 계수값(Estimate)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 V. 연구 결론 및 시사점

### 5.1 연구 결론

본 연구의 출발점은 조직 구성원들의 윤리적 딜레마와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 비윤리적 네트워킹 강화를 억제하는데 정보접근 모니터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시작하였다. 기업의 기밀정보 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서 정보보안 기술투자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 구성원들의 윤리적 인식 강도가 요구되고 있다[17]. 이에 본 연구자는 정보보안을 개인행동에 모두 책임성을 부여하기보다는 기업 중심에서 정보접근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조직 구성원들의 윤리적 의식을 높여주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정보접근 모니터링 운영이 윤리적 딜레마와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 비윤리적 네트워킹 강화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자발적 정보공유 딜레마와 자발적 정보공유 딜레마는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과 비윤리적 네트워킹 강화의 영향력을 높여준다고 나타났다. 특히 정보공유의 윤리적 딜레마 중 자발적 정보공유 딜레마가 비자발적 정보공유 딜레마보다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과 비윤리적 네트워킹 강화에 직접적 영향력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즉, 비자발적으로 발생하는 딜레마보다 능동적으로 발생시키는 윤리적 딜레

마가 한층 더 비윤리적 행동을 높게 가져다주는 역할인자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정보접근 모니터링 운영이 윤리적 딜레마와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 비윤리적 네트워킹 강화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 정보접근 모니터링이 회사 기밀정보 보안의 매개적 역할로서 정보공유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를 감소시켜 주고,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과 네트워킹을 약화시키는데 높은 영향력이 있다고 나타났다. 특히, 정보접근 모니터링의 효과는 조직 구성원들의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을 통한 네트워킹 강화에서도 정보공유 행동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조직 내부에서 정보접근 모니터링이 사전·사후적으로 정보흐름을 감시하면서 개인들의 비윤리적 기밀정보 공유를 억제하는데 높은 도움을 제공한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정보접근 모니터링이 운영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살펴볼 경우, 조직 구성원들의 정보공유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가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을 거쳐 네트워킹 강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나타났다. 즉, 정보공유 딜레마가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과 네트워킹 강화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부에서는 정보 보안의 통제 역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업의 정보접근 모니터링이 없다면, 특정 개인의 비윤리 행동이 조직 내부의 분위기를 비윤리적으로 빠르게 확산시킨다고 설명할 수 있다.

### 5.2 연구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정보접근 모니터링의 투자가 조직 구성원들의 윤리적 행동을 강제시킬 수 있다는 것과 정보 보안의 기초적 투자로서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정보접근 모니

터링이 윤리적 딜레마,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 비윤리적 네트워킹 강화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론적 시사점으로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합리적 선택 이론을 통해서 개인들의 윤리적 딜레마를 설명하였다. 합리적 선택 이론은 개인의 행동이 합리적이고,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의 절차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행동되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11]. 즉, 윤리적 딜레마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개인들은 스스로의 합리적 선택을 이행한다는 것이다. 조직 구성원들의 합리적 선택 의사결정이 조직 내 분위기가 윤리적 또는 비윤리적이나에 따라서 개인들의 윤리적 딜레마가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서 설명하였다. 둘째, 컴퓨터 공학 관점에서 정보접근 모니터링의 구조가 아닌 정보접근 모니터링의 활용성, 투자 가치성을 설명하면서 정보보안 관점뿐만 아니라 윤리적 관점에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보접근 모니터링이 윤리적 행동의 강제성을 일정부분 기여한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이 비윤리적 네트워킹 강화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효과로서 사회적 네트워킹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행위로 강조된 사회적 네트워킹을 설명하였다. 즉,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방법에 의한 사회적 자본 구축을 설명하였다. 기존 연구들의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 측면을 살펴보았다면 본 연구는 부정적 측면의 관점으로 다시금 살펴보는 계기를 제공하여 사회적 자본 이론을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계기를 본 연구를 통해 제공하였다.

다음은 이론적 배경과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업이나 조직 구성원들이 윤리적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의 실무적 시사점을 하였다.

첫 번째로, 기업 관점에서 정보접근 모니터링 운영이 조직 구성원들의 정보 흐름을 감시하게 되면서 정보의 외부누출을 방지하고, 정보 흐름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 조직이 관리하는 정보자산을 미시적 관점까지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보보호 투자의 기본이 될 수 있다고 본 연구를 통해서 강조할 수 있겠다. 두 번째로, 정보접근 모니터링의 활용 가능성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홍보하고, 모니터링의 역할을 대외적으로 공지하면 조직 내부의 비윤리적 분위기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보접근 모니터링으로 인하여 비윤리적 기밀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부정적인 방법으로 네트워킹을 강화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발생하는 기밀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 보안 교육과 윤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겠다.

### 5.3 향후 연구의 방향

본 연구는 정보접근 모니터링이 기밀정보 공유의 윤리적 딜레마, 비윤리적 공유행동, 비윤리적 네트워킹 강화를 감소시키는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하지만 기업의 정보접근 모니터링 운영에 대한 효과가 정보보안 투자 이후 어느 시점부터 발휘되는지 밝혀내는 것도 중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설명은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는 정보접근 모니터링 효과가 어느 시점부터 발휘될 수 있는지 시간적 계산을 위해서 시뮬레이션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 참고문헌

- [1] Turban, Efraim, et al. *Electronic Commerce 2018: A Managerial and Social Networks Perspective*. Springer, 2017.
- [2] Laudon, Kenneth C., and Jane P. Laud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Pearson Education India, 2016.
- [3] 정병호·김병초, “중소기업의 IT 투자에 따른 정보 품질과 프로세스 개선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36권, 제4호, 2014, pp.47-71.
- [4] 최재영, “IT 투자 정당화 요인에 관한 연구,” *디지털정보산업학회지*, 제11권, 제4호, 2015, pp.177-187.
- [5] Hartman, Laura Pincus, Joseph R. DesJardins, and Chris MacDonald. *Business ethics: Decision making for personal integrity and social responsibility*. New York: McGraw-Hill, 2014.
- [6] NIST, *Information Security Handbook: A Guide for Managers*, 2006.
- [7] Conger, Sue, Karen D. Loch, and B. Loerine Helft. "Eth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use: a factor analysis of attitudes to computer use," *Information Systems Journal*, Vol.5, No.3, 1995, pp. 161-183.
- [8] Ferrell, Odies C., and John Fraedrich. *Business ethics: Ethical decision making & cases*. Nelson Education, 2015.
- [9] Heller, Frank., "Socio-technology and the environment," *Human Relations*, Vol.50, No.5, pp. 605-624, 1997.
- [10] Elster, Jon. *Rational choice history: A case of excessive ambition*. 2000.
- [11] Elster, Jon, ed. *Rational choice*. NYU Press, 1986.
- [12] Elster, Jon. "The nature and scope of rational-choice explanation," *Science in reflection*. Springer, Vol. 110, 1988, pp.51-65.
- [13] Tenbrunsel, Ann E. "Misrepresentation and expectations of misrepresentation in an ethical dilemma: The role of incentives and tempt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41, No.3, 1998, pp.330-339.
- [14] De Dreu, Carsten KW, Bernard A. Nijstad, and Daan van Knippenberg. "Motivated information processing in group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Vol.12, No.1, 2008, pp.22-49.
- [15] 정병호, “기밀정보 유출 경험을 가진 기업들의 정보사고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연구,” *디지털정보산업학회지*, 제12권, 제2호, 2016, pp.73-86.
- [16] 이정환·정병호·김병초, “기업 보안 유형에 따른 보안사고 대응역량: 사회기술시스템 이론 관점에서,” *한국IT서비스학회지*, 제12권, 제1호, 2013, pp.289-208.
- [17] 정병호·김병초, “윤리 프로그램을 통한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의 개선 : 사회적 자본과 잔물결 효과,”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제15권, 제8호, 2017, pp.169-182.
- [18] Anderson, Evan E., and Joobin Choobineh., "Enterprise information security strategies," *Computers & Security*, Vol.27, No.1, 2008, pp. 22-29.
- [19] Guo, Ken H., "Security-related behavior in using information systems in the workplace: A review and synthesis," *Computers & Security*, Vol. 32, 2013, pp. 242-251.

- [20] Schlegelmilch, Bodo B., and Irene Pollach., "The perils and opportunities of communicating corporate ethics," *Journal of Marketing Management*, Vol.21, No.3-4, 2005, pp.267-290.
- [21] Burt, R. S. "The network structure of social capital.,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Vol. 22, 2000, pp. 345-423.
- [22] Clegg, Chris W., "Sociotechnical principles for system design," *Applied ergonomics*, Vol. 31, No. 5, 2000, pp.463-477.
- [23] Seibert, Scott E., Maria L. Kraimer, and Robert C. Liden., "A social capital theory of career succes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44, No.2, 2001, pp. 219-237.
- [24] Ifinedo, Princely.,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olicy compliance: An empirical study of the effects of socialisation, influence, and cognition," *Information & Management*, Vol. 51, No. 1, 2014, pp. 69-79.
- [25] Merkow, Mark S., and Jim Breithaupt. *Information security: Principles and practices*, Pearson Education, 2014.
- [26] 정병호·김병초, "IT 프로젝트 모방 투자 유형에 따른 성과 차이 연구," *한국IT서비스학회지*, 제 11권, 제3호, 2012, pp.205-225.
- [27] 신현조·이경복·박태형, "인적 및 직무특성과 보안 교육 이수율 및 사이버테러 대응과의 연관성 분석," *디지털산업정보학회지*, 제10권, 제4호, 2014, pp. 97-107.
- [28] Carroll, John M., *Confidential information sources: Public and private*, Elsevier, 2014.
- [29] Hair, Joseph F., *Multivariate data analysis*, 2010.

■ 저자소개 ■



정 병 호  
(Jung Byoung-ho)

2018년 3월 경남대학교 글로벌PM 연구원  
2015년 9월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 박사  
2011년 3월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 석사  
관심분야 : IT투자, 정보보안, 정보윤리,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E-mail : jung.hmis@gmail.com

논문접수일 : 2018년 05월 15일  
수정일 : 2018년 05월 29일  
게재확정일 : 2018년 05월 30일